

鐵에서 문화예술로...광양시 '제2의 도약'

광양시가 '컬처노믹스(Cultureomics) 시대' 원년을 선포했다. 문화와 예술을 시민의 삶에 밀착시켜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 최고 행복수도', '전남 제1의 경제도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정 방침에 따라 '문화적 자원'을 '경제자본'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컬처노믹스 시대' 원년 선포
도립미술관 유치·예술촌 건립...
인프라 늘리고 전시·공연도 풍성
도시格·시민 삶의 質 높이고
산업·문화 융합 '창조경제' 포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산업에서 문화도시로=광양시는 철과 역사적 상호 연관성을 가진 지역으로 이를 문화와 융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지난해 8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인프라를 위해 이낙연 도지사가 전남 동부권에 건립키로 공약한 도립 미술관(300억원 투자 2018년 완공)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립 미술관은 '섬진강 문화예술회관'(回廊) 지대와 연계된 영·호남 문화벨트 구축 전략과 절묘하게 맞아 유치가 희망적 이란 분석이다.

또 총 20억원을 들인 '광양 사리실 예술촌'이 연말 광양읍 사곡리에 문을 열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다양한 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6년 1월 광양읍 덕리에 개관할 CGV영화관(7개관 1065석)과 소풍센터, 패밀리 레스토랑 등은 한 곳에서 문화향유와 소풍이 가능해 연간 70만 명의 관객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을 전방이다. 특히 도선국사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불교문화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광양시 육풍

면 추산리 일원에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사업비는 110억원 규모로, 올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국내외 풍수연구의 일선이자 자유로운 정신충전이 가능한 특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광양시가 보유한 40건의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10억을 투입 지정문화재 및 향토 문화유산을 정비한다. 7억6000만원을 들여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인 서울대 학술원 관사(광양읍)를 보수해 연말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 밖에 진월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341호)도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해설사를 상주시켜 방문객에 운동주 시집의 존재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이 펼쳐진 곳이자 한국영화 사상 1761만명이 관람해 최고의 흥행작 '명량' 촬영지인 광양만과 이순신 대교 명소화를 위해 광양항 해양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해 영화속 감동을 간접 체험하도록 했다. 포토존에는 영화속 이순신 장군(최민식 분)과 구루지마(류승룡 분)를

? 컬처노믹스(Cultureomics)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를 합성한 신조어. 문화와 브랜드를 접목하는 문화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화를 이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0년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피터 듀런드(Peter Duerlund)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비롯해 조선 수군을 생생하게 재현했으며, 촬영장 스틸컷, 주요 스토리 등 홍보판을 설치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문화 공연도 풍성=올 해 문화 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광양 시립예술단은 정기·수사공연,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시·군 교류문화공연(자매도시 신안 등) 등 총 50여회에 걸쳐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해 특색있는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펼친다.

좀 더 폭넓은 장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화, 서양화, 조각, 사진, 서예 작품대회와 전시회 등 80여 차례 개최한다. 또 남해상 판소리대회, 선사인간요제, 설비가요제, 발레와 연극 등 다양한 문

화·예술 공연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신년음악회와 국악, 연극, 대중음악, 뮤지컬 공연예술 8회를 실시하고, 인문학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조정래와 공지영 작가를 초청해 시민과의 만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원하는 수도권 수준의 문화프로그램인 국립 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국비공모 사업을 추진해 우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개인과 기업이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는 '메세나 운동'을 통해 기업에는 창조적인 문화를 심고, 예술단체에는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선진 문화도시에 걸맞은 사회공헌으로 시민들께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그동안 광양시는 산업도시로서 성장발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문화의 가치'를 창조경제의 바탕으로 삼고 문화예술 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투자를 확대해 나갈 복안이다.

광양시 박형은 문화홍보관은 "광양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활동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농지 1년만에 100만㎡ 줄어 토지개발사업으로 공장용지·도로는 크게 늘어

광양시의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따라 전·답(田畠)과 임야 면적이 감소하고 공장용지와 도로, 대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광양시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5만3566.9㎡ 증가한 4억6011만4743.5㎡로 최종 확정됐다.

토지면적 증가 원인은 금호동 광양제철소의 설비확장과 광양읍 세풍리 울촌산단의 공장용지 신규등록 때문이다.

토지 지목별 변동 증감은 토지개발 사

업으로 인해 답(-75만3942.4㎡), 전(-25만6천421㎡), 임야(-12만2786.7㎡)는 감소하고, 공장용지(52만8438.6㎡)와 도로(50만1703.4㎡), 대지(8만5024.1㎡)는 늘었다. 전체 토지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3억83만6705.3㎡(전체 면적의 65.4%)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답 4884만4582.6㎡(10.6%), 공장용지 2226만4034㎡(4.8%), 전 1867만3235.8㎡(4.1%), 도로 1752만1085.1㎡(3.8%), 대지 1256만6550.9㎡(2.7%), 기타 3940만8549.8㎡(8.6%) 순이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농촌지도자 광양시연합회 신임회장에 서현필씨

(사)한국농촌지도자 광양시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서현필씨가 선정됐다.

연합회는 22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제21대·제22대 이·취임식을 가졌다.<사건>

서현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과거에는 별보고 허리 구부리는 것이 농사였던 것에 비해 이제는 농업도 브레인 산업"이라며 "품종 선택부터 판매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과학영농이 필요한 때로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

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입하는 황상보 회장은 "지난 3년간 농업인 한마음대회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단결심과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새로운 리더와 함께 더욱 활성화된 광양 농촌지도자회의의 미래와 새로운 과학영농의 시대, 더욱 선진화된 광양 농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만권 경제자유청 세풍산단 TF팀 구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미래 화학소재 산업의 실마리가 될 세풍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풍산단 기획(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기획팀은 세풍산단내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원 확보와 함께 미래 유망업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산단반 ▲바이오패키징반 ▲희토류반 등 3개 반을

구성해 세풍산단 개발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산단반'은 세풍산단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산단 지정에 위한 투자수요 확보와 타당성 검토를 담당한다.

'바이오 소재 패키징반'은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관련 핵심기업 유치와 전용 단지(약10만평) 조성에 힘쓰며, '희토류반'은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와 국내 대기업과의 투자협력 체계 구축 등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광양항 해양공원 포토존.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이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회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니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0)적장 주차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아파트 매매

- ▶ **한양아파트**(남구 주월동)
1층 / 28평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
◆ 매매 1억2500만원
◆ 전세 1억500만원
◆ 임대 5000만원/30만원
- ▶ **현진 애버빌**(광산구 수완동)
1층 / 53평
학군최상 / 투자가치 좋음
내부 깨끗
◆ 매매 4억9500만원
◆ 전세 4억500만원
◆ 월세 2억 / 100만원

상가 임대

- ▶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입점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적합)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땅 매매

- ▶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 900평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투자가치 좋음
◆ 용자 2억4000만원
◆ 매가 4억500만원

010-8676-1900